



불교의 사회참여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4일 불교 인권위 공동대표 진관·지연 스님과 양심수 후원 및 구속자 학생과 노동자 인권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약칭 민가협) 관계자들과 만났다. 총무원장이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자리에서 법장스님은 배석했던 사회부장 미산스님에게 "종령을 정비하면서 종단 차원에서 인권위원회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장스님은 또 "인권존중은 곧 불교의 가르침인데도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불교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얼핏 보면 종단 차원의 인권위원회 제도화 검토 지시가 즉흥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법장스님과 조계종의 최근 행보를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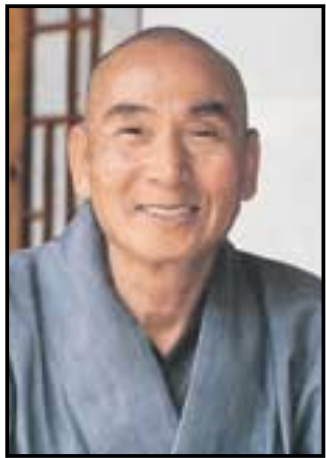
최근 들어 조계종 총무원의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라크 전쟁으로 반전 목소리가 높을 때 조계종은 전국 사찰에 공문을 보내 평화법회를 열도록 지침을 시달렸고, 초하루법회가 열린 2일 조계사와 수원포교당 등 전국 사찰에서 평화법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법장스님과 조계종 중앙총회는 전쟁을 반대하는 호소문과 성명을 각각 발표하기도 했다.

사실 지금까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회 이슈에 조계종이 이렇게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적은 없었다. 불교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사회참여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여러 불교단체들의 영향도 있지만, 조계종 총무원 새 집행부의 의지와 시대흐름에 부합하려는 스님들의 인식전환이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생의 아픔을 어루만져주지 못하는 가르침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많은 불자들은 지금 조계종의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불교와 사회를 바꾸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명우(취재1부 차장)

조계종 8대 종정 서암스님 원적 열반송마저 거부한 '무위의 삶'



여거(如去). 서암 스님의 입적 소식은 이 한 마디로 충분하다. '그렇게 가신 것이다.' 여실(如實)하게 생사를 떠난 것이다.

관련기사 3·7면

지난 3월 29일, 조계종 제8대 종정을 지냈던 서암 흥근(西庵 鴻根) 스님이 세수 87 법랍 68세로 봉암사 태고선원에서 원적에 들었다. 그리고 2일, 사리 수습 같은 건 하지 말라는 유언대로 이생에서의 흔적을 말끔히 거두었다.

여거(如去)라는 말은 여래실호 중 하나인 선서(善逝)라는 말과도 통한다. '잘 가는(善逝) 이' 즉 미혹의 세계를 능히 뛰어넘은 사람을 일컫는다. 서암 스님은 바로 그런 삶을 온몸으로 보여 주었다. '바람' 하나면 육신을 위한 일체의 살림살이가 수습되는 '운수(雲水)'의 삶으로,



◇서암스님 대비식이 5천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2일 봉암사에서 '수좌장'으로 열수됐다.

이른바 '수좌정신'을 온 삶으로 증명했다. 94년 조계종단의 분규를 겪으면서 종정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도 '종 벼슬 닭 벼슬보다 못함'을 보여줬지만, 그 행위는 결코 또 다른 형태의 명예나 권위를 세우는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남은 자'로서 마땅히 할 바를 성찰하는 것으로 스님의 가신 뜻을 기리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스님의 삶에 대한 신비

화를 삼가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많은 큰스님들의 사후를 지켜본 사람들의 지적이다. 그것이 비록 지극한 추모의 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신비화는 절대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절대화는 맹목적 복종과 존경을 강요한다. 그것은 열반송을 묻는 제자들에게 "나는 그런 것 없다. 누가 물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 갔다고 해라"고 한 스님의 뜻과 10만 8천리다. 선가(禪家)의 오랜 관행인 열반송마저

마다한 스님의 열반송 아닌 열반송이야말로 일체의 형식과 권위를 거부하는 선 정신의 발로이며, 영무새 노릇 그만 하고 오늘의 선 가풍을 새로이 세우는 준엄한 '할'이다.

서암 스님의 원적으로 근세와 현대를 아우르는 수행자 세대는 사실상 마감됐다. 이제 남은 일은 오늘의 수행자상을 세우는 일이다. 서암 스님의 '바람정신'은 계속되어야 한다.

윤제학 기자 yunjh@buddhapia.com

한·중·일 불교대회 북한도 참여할 듯

오는 10월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제6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에 북한 대표단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 대표단은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열린 예비회의에서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을 제6차 불교우호교류대회에 초청하기로 했다. 북한 대표단 초청은 일본측 국제불

교교류협의회가 맡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측 대표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도 조별연락에 초청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조별연과 북측 대표단 참가 여부와 대표단 구성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3국 대표단은 제6차 대회를 10월 28-30일 일본법상종 총본산 청수사와 임정교성회 경도교회 등지에서 개최하고 각각 1백여명 안팎의 대표단을 참여시키기로 합의했다. 대회는 불교환경 사진전시회, 평화기원법회와 캠페인, 학술강연회 등으로 진행된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 성사위해

탁연 스님, 민주·한나라의원 방문

1급청인 문화재청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조계종이 적극적 행보를 펼치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스님은 1일 행자위 간사 전갑길 의원과 배기선 문화관광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을 방문, 법안 통과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이 자리에서 전갑길 의원은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의 차관청 승격이 꼭 필요하다"는 탁연 스님의 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배기선 의원 역시 "국립박물관도 차관급으로 격상된 만큼 대부분 의원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소위원회 법안심사(17-22일)를 앞두고 조만간 한나라당도 방문할 예정이다. 탁연 스님은 "국가문화유산관리 체계 확립을 종단의 사명으로 선정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jinhy@buddhapia.com

함께 일할 참신한 일꾼 찾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세상을 보는 눈. 부처님과 종생을 이어주는 믿음의 가교 구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대불교가 내일을 이끌 인재들을 찾습니다.

■모집부서

수습기자약간명

■응시자격

① 불교신자

②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남자는 1975년 1월 1일 이후, 병역면제 남자 또는 여자는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대졸 불자 대상... 13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03년 4월 13일(월)

2. 접수방법

본사 인터넷신문인 부다뉴스(http://www.buddhanews.com) 또는 본사가 운영하는 불교정보센터인 부다피아(http://www.buddhapia.com)에 접속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 E-mail(cseo@buddhapia.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시험당일에 제출하십시오. (최종합격자가 아닌 경우 제출서류는 돌려드립니다)

4. 1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인터넷 공고 (문의전화 02-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북한산 관통도로 5·6공구 공사중단

국무총리 산하에 노선재검토위 구성

최 건교장관, 법장 총무원장 예방

정부가 북한산 관통도로 5·6공구 공사 중단과 노선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최중찬 건설교통부장관은 4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예방

한 자리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북한산 5·6공구 수락산·불암산 구간의 공사를 중단하고 백지상태에서 노선을 재검토하는 한편, 국무총리 산하에 노선재검토

위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25일 이 문제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해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5·6공구 공사 중단과 노선 백지화(기존 노선 제외)를 주장해 온 불교계의 요구를 일부 수렴한 것으로, 북한

산 문제는 이제 노선재검토위에서 다뤄지게 됐다.

정부의 입장을 전해들은 법장스님은 "공사중단은 환영하지만 현 노선을 제외한 상태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계의 입장"이라며 "완전 백지화"를 요구했다.

최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선재검토위 구성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최장관의 제안이 기존의 방침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정부 입장을 검토한 뒤 노선 재검토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mwihan@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의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광주: (062)375-9986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충북: (043)258-3282 강원: (033)643-5599 동해 삼척: (033)521-6293 영주: (054)634-3429 경남 동부: (055)353-1196

www.dhsystem.co.kr

불자들에게 대한시스템이 특별한 만족을 드립니다



Anegre - 내화·내충·내도·내화

대중방이 정리되지 않으신가요? 저희 대한시스템 불박이장이 깔끔하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空間藝術

대한시스템 불박이장은 고객의 다양하고도 넓은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20여년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격의 디자인과 확실한 품질, 또한 여러종류의 차별화된 독특하고 편리한 기능으로 수납의 효율성은 물론 고급스럽고 개성있는 공간을 고객의 기호에 맞게 아름답고 편리하게 꾸며 드립니다.

사무실
납품
대리
모양
•
법률사
•
상문사
불



맞춤 불박이장 전문 메이커

대한시스템

불박이장사업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신동 730-7(남동공단 167번길 8롯데)
TEL: (032)822-0022~30 FAX: (032)822-0033
소재지: 보문동 (032)822-0030